

# 기독교적인 삶과 실천을 제약하는 사회적 힘에 대한 기독교사회학적 분석

이 철(송실대학교 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개인에게 사회는 무엇인가?

1. 대상관계 이론
2. 대상 혹은 객체로서의 사회
3. 주체로서의 사회

## III. 개인은 사회적 힘을 넘어설 수 없는가?

1. 성서는 사회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가?
2. 성서는 사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3. 사회적 힘을 넘어설 수 있는 대안들

## IV. 나오는 말

\* 본 논문은 송실대학교 교내 연구비로 수행된 연구입니다.

---

• **ABSTRACT** •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sociologically the following question: why do Christians find it hard to live by faith in the society? The reason is usually ascribed to such individualistic explanation as lack of faith or willingness, worldly temptation, and worry about life. But this study believes they fall far short of fully accounting for the question, and to answer it more properly an examination of its social aspect is needed. Sociological and Psychological theories are thus adopted for this study to ask what is the nature and role of society to individuals and why individuals hold a subordinate relationship with their society. The theoretical research leads this study to the second question: in what way Christians become more independent from the power of society. This study suggests a Biblical approach. It believes Biblical interpretation of society can give a way of answering the question. Last, several ways of being more susceptible to live by faith than to follow the world are suggested with sociological and religious point of view.

**Keywords:** individual, independent, faith, willingness, the nature and role of society, the power of society

---

## I. 들어가는 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왜 쉽지 않을까?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신앙의 계명이나 윤리를 지키며 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래서 말씀만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을 좇아 사는 것이 더 일반적인 모습이 되고 있다. 누구의 잘못인가? 신앙인의 잘못인가 아니면 세상, 곧 사회의 잘못인가? 본 논문은 이 문제의 원인을 개인적 차원에서보다는 사회적 차원에서 찾고자 한다. 물론 신앙 개개인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믿음과 결단의 부족, 세상에 대한 염려, 세상 것들에 관한 욕심 등이 그것일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 문제를 개인문제로만 환원시키는 것은 적절하거나 충분한 평가가 아니라고 본다. 사회적 차원의 원인도 함께 다루어야 문제의 본질에 제대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근거해 본 논문은 신앙 개개인의 삶과 행위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힘에 주목한다. 사회는 어떻게 신앙인들에게 힘을 가지게 되었는가? 어떤 이유로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 그러한 힘을 발휘하게 되었는가? 이러한 질문에 효과적으로 대답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개인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사회학, 사회심리학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용하다. 여러 사회과학자들의 이론들이 아래 내용에서 언급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연유 때문이다.

글의 순서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이어진다. 먼저, 개인에게 있어 사회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사회과학자들의 이론에 근거하여 사회는 개인에게 있어 하나의 외재하는 대상이며 또한 내재하는 대상이다. 이 두 경우 모두, 사회는 개인을 규제하고 제약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사회적 힘을 신앙인이 뛰어넘을 수 없는지 묻는다. 이를 위해 성서적 사회관을 제시하면서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설명해온 사회를 신앙적으로 조망한다. 그 후 드러난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신앙인이 사회적 힘을 벗어나거나 차단할 수 있는 사회과학적인 대안과 기독교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 II. 개인에게 사회는 무엇인가?

### 1. 대상관계 이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태어날 때의 상태를 보면 자연 세계의 어느 동물보다도 미약하고 무능하다고 할 수 있다. 태어난 후에도 상당히 긴 기간을-여타의 다른 동물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장시간 동안-전적으로 타자에 의지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이때 유아는 대상관계 이론(object relations theory)에서 일반적으로 첫 대상이라고 부르는 어머니를 만나게 된다. 이 시기 동안 무력한 유아는 전적으로 그 대상을 통해 자신의 욕구-배고픔, 추위, 축축함, 두려움, 불안, 고통 등등-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대상에 대한 의존도는 절대적이다. 절대적인 만큼 밀착과 애착이 강력하다. 유아는 이 대상과의 깊은 교류 관계를 통해 자신이 필요한 것들-예를 들어, 음식, 포옹, 새 기저귀 등등-을 해결하고, 이러한 일이 원만히 해결될 때, 그는 만족감, 안정감, 성취감을 느끼게 되며, 이런 호의적인 상호관계의 지속을 통해 유아는 대상과의 신뢰 관

계를 형성한다.<sup>1)</sup>

한편, 다른 욕구 충족 메커니즘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유아의 상태이기 때문에 대상과의 관계에서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는 불안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배고픔을 느껴 울음을 통해 호소할 때 대상이 적절하게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면 유아는 배고픔과 함께 고통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고통이 지속될 때 유아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게 된다. 이 때의 대상과의 관계에는 신뢰 보다는 불신, 분노의 관계로 발전된다.<sup>2)</sup>

대부분의 경우, 유아의 첫 대상은 소위 “굿 마더”(a good mother/object)이다. 즉 유아의 욕구에 대부분 충실히 응해주는 어머니이다. 그러나 완벽한 “굿 마더”는 없다.<sup>3)</sup> 따라서 모든 유아는 태어나 대상과 밀착, 애착관계를 맺으면서 불안, 공포, 두려움 등을 느끼는 체험을 하게 되며, 이것은 결국 그러한 고통을 피하려는 소망이나 노력을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미래를 준비하게 된다.

흥미를 가지고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첫 대상 다음으로 유아가 만나게 되는 두 번째 대상이다. 이 두 번째 대상은 유아가 어느 정도 성장하여 자립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중간단계, 혹은 전환 단계에 발생하는 소위 “전환기 대상”(transitional object)으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예로는 곰 인형, 장난감, 담요나 이불 귀퉁이 등이다.<sup>4)</sup> 이 용어를 사용한 대상관계이론가 위니컷(D. W. Winnicott)에 따르면, 유아는 이제 이런 대상에 자신을 밀착시켜 애착을 가지면서 지내게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놀이(play)나 좋아함이 아니라 그 대상과 밀착하면서-마치 첫 대상과 함께 하면서 가졌던 것처럼-그 대상으로부터 안정감과 평안을 얻으려 하는 것이다.<sup>5)</sup> 이 기간 동안 아이는 이 전환기 대상을 통해 고통과 불안과 같은 감정의 어려움 시기를 견디며 극복한다. 다시 말해, 어려운 상황에 예상되거나 닥쳐오면-예를 들어 이제 혼자 자기 방에서 잠을 자야하는 상황이 되면-이 아이는 이 전환기 대상을 통해 안정감과 평안을 구하면서 그 상황을 이겨나가려고 노력한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미 대상관계이론을 통해 증명되었듯이 어렸을 때 대상과 관계 맺는 방식은 아이가 어른이 된 후에도 계속 잔존하여 그가 성인이 된 후에 맺게 되는 다른 대상과 관계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sup>6)</sup>

## 2. 대상 혹은 객체로서의 사회

필자가 본 연구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도 개인들에게 하나의 대상(object)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성인이 된 후 불안, 고통, 두려움의 상황에 처해지거나 처해질 상황이 오면 -마치 어린 아이가 첫 대상 혹은 전환기 대상에게 그러하였듯이-그 성인도 사회와 밀착하면서 사회로부터 안정감과 평안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는 바로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유아기 때에 대상과 관계 맺는 방식이 성인이 된 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1) Janet Sayers, *Sexual Contradictions: Psychology, Psychoanalysis, and Feminism* (London: Tavistock Publication, 1986), pp.50-51.

2) 위의 글, pp.51-52.

3) 위의 글, pp.54-56.

4) “Transitional object”를 전환기 대상이라고 번역하였으나 혹자는 중간 대상이라고도 번역한다. 필자는 전자가 이 용어가 의미하는 바를 보다 정확히 나타낸다고 생각하여 전환기 대상이라고 번역하기로 한다.

5) D. W. Winnicott, *Playing and Reality* (London: Tavistock Publication Ltd., 1971), p.4.

6) Otto F. Kernberg, *Object Relations Theory and Clinical Psychoanalysis*, 이재훈, 양은주, 「대상관계 이론과 임상적 정신분석」(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3), 57-59면.

사실로부터 유추할 수 있으며, 단지 그 대상이-일반 대상관계이론가들이 언급하는-다른 사람들(objects)이 아니라 사회라는 것만 다를 뿐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밝혀야 할 것은 과연 사회를,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사회를 대상으로(society as an object)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해, 개인들이-마치 유아가 어머니를, 그 후에는 곰 인형이나 장난감을 대상으로 인정하듯이-사회를 대상으로 인식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명확히 긍정적 대답을 내리고 있는 자가 바로 불란서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이다.

그에 따르면 사회는 개인들이 구성하여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개인 밖에 존재하는 하나의 대상이다. 사회는 결코 구성원들의 단순한 합이 아니다. 뒤르켐은 오스트레일리아 토렘부족인 아룬타(Arunta)부족의 연구를 통해 이를 상세히 서술해 내었다. 아룬타 부족에게 사회 공동체는 하나의 독립된 실재이며, 부족원들은 이 실재를 그들 외부에 존재하는 한 대상으로 인식한다. 한편, 사회는 개인들 외부에 존재하는 대상인 동시에 또한 하나의 힘이기도 하다. 이 힘은 도덕적이며 인격적이며 물리적인 힘으로, 아룬타 부족원들에게 여러 가지 명령과 일을 부과하는 외적 영향력이다<sup>7)</sup>. 부족 구성원들은 사회가 개인보다 우월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그 힘을 또한 느낀다.<sup>8)</sup>

뒤르켐은 더 나아가 사회를 아예 신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사회와 그 구성원들 간의 관계는 신과 그 신앙인들 간의 관계와 마찬가지로”라고 하였다.<sup>9)</sup> 신이란 개인들 밖에, 개인들 위에 존재하면서 개인들에게 여러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이다. 뒤르켐은 아룬타 부족의 토렘 축제 분석을 통해 부족 구성원들이 그들의 공동체, 곧 사회를 신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신 같이 섬기고 있다고 밝혀내었다.

이러한 사회의 존재 방식과 영향력은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더욱 강화되었다고 현대 사회학자 앤소니 기든스(Anthony Giddens)는 보고 있다. 현대 사회는 이전의 사회와 달리 시공간적으로 더욱 세분화되고 확대되었으며, 또한 인격적이기 보다는 비인격적이고 익명적으로 되었다.<sup>10)</sup> 이러한 변화된 사회 상황에서 개인들은 이전 보다 더 긴장하면서 성찰적으로 사회에 대응해야 한다. 기든스에 따르면 현대인들은 ‘그 전체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더욱 더 통제할 수 없는 사건들로 이루어진 세계의 포로들’이다.<sup>11)</sup>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들은 더욱 큰 위기와 불안정성에 ‘아무런 방어 장치 없이 노출’되게 된다.<sup>12)</sup>

결론적으로, 이런 세상에서 삶을 영위하던 개인들이 어떤 이유로 불안, 공포, 두려움, 걱정, 의기소침, 낙심을 당하는 혹은 당할 상황에 처해 지게 되면-마치 유아가 대상에게 하였듯이, 종교인이 신들을 하듯이-개인들은 그 사회에게 나아가 그 사회와 밀착함으로써 그러한 감정적 고통을 피하려 하고, 더 나아가 그 사회로부터 보호와 안정감이라는 구원을 요청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행동 뒤에는 유아기적 대상과의 관계 맺던 방식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이 행동은 분명히 퇴행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프로이드는 이런 과정을 통해 얻는 평안, 안정감을 환상(illusion)이라고 지적하였는

7) Emile Durkheim, *The Elementary Forms of The Religious Life* (New York: Free Press, 1965), pp.254-255.

8) 위의 글., p.257.

9) 위의 글., p.237.

10) Armin Pongs, *In welcher Gesellschaft leben wir eigentlich?* 윤도현, 「당신은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가?」(파주: 한울, 2003), 80-81면.

11) 위의 글., 70면.

12) 같은 글.

데, 이 환상은 이것들을 얻으려는 강력한 소원들(“wishes”)로부터 유래한다고 분석하였다.<sup>13)</sup>

### 3. 주체로서의 사회

사회는 객체로서 개인들에게 인식되는 동시에 주체로서 인식되기도 한다는 것이 사회학자들의 주장이다. 곧 주체로서의 사회(society as a subject) 인식이다.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의 입장으로부터 유래되는 이 접근법은 사회는 개인의 합이며, 개인을 통해 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방법론은 후에 조지 허버트 미드(George H. Mead)와 같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더욱 구체화 되었다. 이 이론의 주요 관심은 이름 그대로 개인과 개인간의 상징-말, 몸짓, 표정, 소리 등-을 통한 상호 작용에 관한 것이다. 미드의 이론을 살펴보자. 그의 따르면 유아는 상징적 상호작용을 하지 못한다. 아직 “I”와 “me”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I”는-간단히 말하면-내가 보는 나이고 “me”는 타인이 보는 나이다.<sup>14)</sup> 유아기를 지나 적정 기간이 되기 전까지 아이들은 “I”는 가능할지 몰라도 “me”는 불가능하다. 이런 상태에서는 “play”는 있을 수 있어도 “game”은 있을 수 없다. “play”는 내가 보는 나, 곧 “I”만 있어도 가능하지만, “game”은 타인이 보는 나, 타인이 기대하는 내가 있지 않는 한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드가 예로 사용한 야구 게임을 살펴보면 이 이론의 진위와 내용이 파악된다. “I”만 있는 어린 아이들로 팀이 구성된다면 결코 야구 게임은 치러 질 수 없다. 그러나 “me”가 생성된 아이들은 상대방의 눈으로 자신을 볼 수 있기에, 다시 말해 상대방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알기에 야구 게임에 참여하여 경기를 운용할 수 있다. 이런 단계에 도달하면 어린 아이는 타인을 의식하고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마음을 쓰게 된다.<sup>15)</sup> 이 때 다른 사람들은 그에게 “의미 있는 타자”(significant other)가 된다.<sup>16)</sup> 상징적 상호작용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살펴보면 이 의미 있는 타자들이 여러 상징들을 통해 어떻게 상대방에게 기대를 부여하는지 알 수 있게 되고, 또한 그 상대방은 이러한 기대에 어떻게 부응하는지 보게 된다. 이 부분에 이르러 일어나는 과정을 자세히 묘사한 이가 어빙 고프만(Erving Goffman)이다. 특히 그의 오점에 관한 이론(stigma-theory)은 이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다.<sup>17)</sup> 예를 들어 보자. 우리가 잘 모르는 외부인이 우리에게 왔다. 우리는 그간 축적한 여러 정보를 활용해 그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려 한다.<sup>18)</sup> 그런데 그 과정 중에 그의 직업이-예를 들어-목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목사에 관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지식을 우리의 축적된 경험으로부터 불러오고-중요

13) Sigmund Freud, *The Future of an Illusion*, trans., James Strachey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Inc., 1961), pp.30-31.

14) George H. Mead, *Mind, Self, and Society: From the Standpoint of A Social Behaviorist*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2), pp.173-78.

15) 위의 글., 152-63. 이와 유사한 사항이 찰스 콜리의 “영상 자아 이론”(looking-glass theory)이다. “우리는 타인의 정신을 그려보는 상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과 태도, 목표, 행동, 성격, 친구 등에 대한 생각을 가지며, 그것으로부터 다양하게 영향을 받는다.” Jonathan H. Turner, *The Emergence of Sociological Theory*, 김문조외, 「사회학이론의 형성」(서울: 일신사, 1997), 514면.

16) 한국산업사회학회 엮음, 「사회학」(서울: 한울, 1998), 96면.

17) Erving Goffman, *Stigma: Notes on the Management of Spoiled Identit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63), pp.3-5.

18) 그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여 사회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형성된 카테고리에 넣을 수 있어야 우리에게 인신론적 평안이 온다. 위의 글, p.2.

한 것은-그것에 근거해 그의 역할과 태도를 기대한다. 만일 이 외부인이 그 기대에 부응한다면 두 대상 사이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만일 그러지 못하다면, 곧 그 목사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행동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즉각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그 목사가 그들의 기대에서 크게 벗어날 때 그 목사는 그들로부터 오점(오명)을 받게 되며 그 사람들로부터 격리과정을 겪게 된다.<sup>19)</sup>

이러한 오점 그리고 이 오점이 가지는 힘은 수치문화가 지배적인 동양 사회에서 더욱 크다. 미국의 인류학자 루트 베네딕트(Ruth F. Benedict)는 동양과 서양의 문화를 구분하면서 죄의식문화(guilt culture)와 수치문화(shame culture)를 언급하였다.<sup>20)</sup> 기독교적 문화의 토양이 깊은 서구에는 아무래도 죄책감의 비중이 높은 문화를 형성하였을 것이고, 유교 문화 사회인 동양 사회는 수치심의 비중을 높을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고프만의 오점 이론은 동양 사회에서 더 적합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유교 사회에서 수치는 때로 죽음과도 같은 것이다.

따라서 오점, 오명을 의미 있는 타자들로부터 부여받은 개인은 사회적 소외-혹은 좀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사회적 죽음-를 당할 수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해 당사자는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그 개인은 그가 속한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오점이나 소외를 피하기 위하여 상징적 상호작용을 통해 전달되어 오는 의미 있는 타자들의 역할과 태도에 관한 기대에 부응하고자 한다. 설령 그 기대되어지는 역할과 태도가 자신의 욕구와 관심에 상치된다 하더라도 말이다.

상기 언급된 이 행위는 다시 유아기적 경험과 연결된다. 그 연결고리는 역시 불안, 고통, 두려움이다. 개인들은 의미 있는 타자들로부터 소외나 방치되게 되면 발생하는 불안, 고통, 두려움을 피하고자 한다. 그 피하는 방식은-다시 동일하게-유아가 첫 대상 혹은 전환기 대상과 밀착을 통해 그러하였듯이 그 의미 있는 대상들 혹은 공동체와의 밀착, 애착을 통해 추구된다. 물론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소외, 격리되더라도 평안하게 지내면 된다. 설령 고통이 느껴지고 불안하다 하더라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그에 맞는 삶을 영위하면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유아기 때부터 그러한 심적 고통을 피하기를 기대, 노력하였고, 그 회피의 메커니즘이 대상들과의 밀착과 관계를 통해 이루어 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심적 고통에 도달하면 혹은 도달 할 것 같으며 아예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나가기 쉽다. 그래서 결국 그 대상들이 기대하는 역할과 태도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행위를 한다. 비록 그 방향이-다시 한번 언급하자면-자신의 관심과 욕구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런 점에서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분석은 정확하다. 문명과 그 불만자인 개인에 관한 연구에서 그는 개인들이 자신의 욕구를 억압해 가면서도 문명의 가르침과 요구에 따른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바로 문명으로부터 원하는 평안과 보호감을 획득하기 위함이다.<sup>21)</sup> 물론 모든 개인들이 사회나 공동체 구성원들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는다. 때로 저항하고 때로 불복종한다. 마치 독일 사회학자 악셀 호네프(Axel Honneth)가 주장하였듯이, 어떤 개인들은 저항하면서 그 공동체나 의미 있는 타자들로부터 독립하여 투쟁한다.<sup>22)</sup> 그

19) 위의 글, p.13, pp.19-20. 격리과정은 다양할 수 있다. 소문, 뒤에서 수군거림, 손가락질, 낙인, 따돌림, 축출 등이다.

20) Ruth Benedict, *The Chrysanthemum and The Sward: Patterns of Japanese Culture*, 김윤식, 「국화와 칼」(서울: 을유문화사, 2002), 400면.

21) 일종의 물물 교환과 같은 것이다. Sigmund Freud, *Civilization and Its Discontents*, trans. James Strachey (New York: W.W. Norton & Company, Inc., 1961), p.62.

러나 그것을 엄격히 독립이라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공동체로부터 나와서 자신들과 동일한 생각과 욕구를 가진 자들끼리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지 이제 새롭게 의미 있는 타자를 갖게 된 것이며, 이전 공동체에서와 동일하게 이 새로운 공동체 구성원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물론, 여기서도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오명, 오점, 격리, 소외의 쓰라린 과정들을 다시 거치게 될 것이다.

### Ⅲ. 개인은 사회적 힘을 넘어설 수 없는가?

과연 개인은 사회-객체로서의 사회 그리고 주체로서의 사회-를 뛰어넘을 수는 없는가? 신학과 신앙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물음들에 대한 대답을 찾는 것이 이번 장의 내용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방법도 모색해 보자고 하자. 먼저 이 일을 위해 우리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이것을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비드 프레이저(David A. Fraser)와 토니 캠펠로(Tony Campolo)는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한다. “성서적으로 말하는 법을 배우라.”<sup>23)</sup>

#### 1. 성서는 사회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가?

성서는 사회에 대한 관점, 곧 사회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그렇기도 하고 그러지 않기도 하다이다. 곧, 성서는 ‘분명히’ 사회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다. 다시 말해, 사회학에서 언급하는 수준으로 혹은 현대인들이 이야기 하는 것처럼 사회에 대해 구체적이고 분석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는다. 성서는 분명 사회구조, 계급갈등, 경제행위, 노동력, 문화, 상호작용 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서에는 사회에 대해 어떤 관점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혹은 이런 개념들이 성서에 있을지 몰라도 그것들을 현대 사회에 적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불합리한 일일까?

프레이저와 캠펠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언급한다. 첫째, 성서에-예를 들어-분배, 자본, 투자, 소득, 잉여라는 개념이 없다고 하여 성서가 경제에 대해 어떤 시각도, 입장도 없다고 할 수 없다. 이것은 마치 고대 사회에는 경제 개념이 없다고 하여-실제로 고대에는 ‘경제’라는 개념이 없었는데-경제가 없었다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sup>24)</sup> 비록 경제라는 개념은 없었지만 거기에는 경제 행위와 과정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따라서 이런 행위와 과정들에 대한 시각과 입장들이 로마 사회와 로마 문헌에 있었다. 동일하게, 성서에 사회 개념들이 없다하여 사회나 사회과정들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이들에 대한 시각이나 평가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sup>25)</sup>

둘째로, 혹자는 성서적 사회관이 있긴 있지만, 시대 뒤 떨어진다는지 미발달된 상태이기

22) 아르민 폰스 엠클, 앞의 글, 102-03면.

23) David A. Fraser and Tony Campolo, *Sociology through the Eyes of Faith*, 강대기, 「신앙의 눈으로 본 사회학」 (강대기 옮김) (서울: IVF, 1992), 177면.

24) 위의 글, 182-83면. 두 사회학자는 말라리아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에도 말라리아는 있었다는 예를 들고 있다.

25) 위의 글, 183면.



때문에 대화를 하거나 배울 점이 없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근대 서구 유럽의 인류학자들이 초기에 빚은 잘못을 또다시 답습하는 것이다. 초기 인류학자들은 서구의 국가들이 정복한 식민지 지역에 들어가 그들의 사회와 문화와 과학을 연구하면서 그것들을 미개한 것으로, 후진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오늘날 인류학자들, 민속학자들은 이러한 접근을 잘못된 접근으로 인식하고, 연구 대상지역의 문화가 자신들의 것과 다른 것이지 결코 잘못되었다든지 열등하다고 보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상대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위치에서 연구 대상에 접근하여 연구를 시행한다.<sup>26)</sup> 동일한 방식이 성서, 성서 시대의 사회와 문화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현대 사회학자, 혹은 일반 현대 지성인들이 흔히들 가지는 성서에 대한 가치 평가적이고 우월적인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나 성서에 있는 그대로 듣고 보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 2. 성서는 사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였다. 그 세상은 온전하였고 평온하였다. 그러나 인간의 교만과 탐욕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세상은 죄로 물들기 시작했다. 물론 이 때 인간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교만, 탐욕, 불순종을 유혹하는 사단이라는 존재도 관여하였다. 그리고 이 변질된 사회는 이방 문화와 혼합되면서 점차적으로 우상, 쾌락, 억압과 같은 죄와 불의가 늘어나게 되었다. 바알의 맘몬적 요소, 아세라신의 쾌락적 추구, 이방 국가의 억압적 사회계층 구조가 이 과정 중에 개입되어 사회는 본래의 모습을 잃어갔다. 이러한 사회의 모습을 본 하나님은 때때로 예언자들을 보내어 원래의 사회 모습으로 회복을 촉구하였으나 그 예언자들의 말은 목살, 거부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은 상대적으로 더욱 세속화되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와야만 했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지막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게 된 것이다.

문제는 예수에게도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결국은 죽음까지도 내놓아야 할 만큼 어려운 일이었다. 그리고 이는-다시 한번-그만큼 세상은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한 세상과는 멀어졌다는 것을 뜻했다. 이 일을 수행하려는 예수를 가장 먼저 반대하며 제동을 건 존재는 사단이었다. 그는 광야에서 예수를 찾아가 예수가 해야 할 일을 방해하기 위해 시험과 유혹을 걸어왔다.

이 시험에서 우리가 눈여겨 볼 사항이 있다. 사단은 두 가지 시험을 한 후 마지막으로 예수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준 후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고 하였다.<sup>27)</sup> 여기서 사단은 분명히 지금 세상이 자신의 것 혹은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암시한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예수는 “거짓말 하지 말라, 속이는 자여. 네 것이 아닌데 어찌 내가 나에게 주겠느냐”라고 하였을 것인데,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sup>28)</sup> 세상에 대한 사단의 소유권 혹은 통제권에 대해 예수가 전혀 대응이나 부인하지 않은 것에서 우리는 과연 당시 세상이 누구의 소유 혹은 통제 하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분명 사단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이었다.<sup>29)</sup> 그러나 예수는 결국 그를 이기고 그의 힘을 이기었다. “담대하라…….내

26) 위의 글, 184면.

27) 마4:8-9.

28) 마4:10.

29) Fraser and Campolo, 위의 글, 189, 191-191면; “그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가 세상을 이기었노라.”<sup>30)</sup>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직 이 승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신학이 말하는 종말론적 역사관에서 잘 알 수 있다.<sup>31)</sup>

예수가 싸워야 할 또 다른 대상은 제자들, 곧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예수와 삼년간 공생애 생활을 하면서도 수시로 세상과 하나 되고자, 세상의 인정과 보호를 구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자기들끼리 길 거리에서 자리다툼을 하고, 예수를 위해 많이 버렸으니 예수를 통해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그러다 중국에 세상이 예수를 버리자, 또 예수의 사역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자 모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 예수는 이런 제자들과 ‘싸워야’ 했고, 이런 제자들을 놓고 세상과-또는 사단과-겨루어야만 했다.<sup>32)</sup>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서도 이 대결은 계속 되었다. 예수의 말씀을 따라 이제부터 두 주인 중 한 주인만 좇기로 한 제자들과 바울은 교인들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분과 경계를 요청하였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sup>33)</sup>

이러한 가르침과 경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제자들과 교인들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벗어나기 힘들어하였다. 로마의 옥에 갇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sup>34)</sup> 예수는 세상을,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이기었지만(‘already’) 세상과 사단은 아직도(‘not yet’) 개인들에게 힘과 영향력을 소지, 발휘하고 있었다.

### 3. 사회적 힘을 넘어설 수 있는 대안들

#### 1) 사회학적 대안: 퇴행을 넘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한 세상과는 달라졌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것이 성서적 사회관이고 성경에 근거한 사회적 가르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닌 “세상으로 좇아 온 것,” 표준새번역의 표현을 따르자면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닌 “세상에서 온 것”을 좇는다. 왜 그럴까? 그 이유를 단순히 탐욕과 이기심과 같은 개인적 차원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가? 본 논문의 논지는 이를 긍정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개인을 넘어서는 차원이 있다는 것이다. 사단은 지금도 권세를 가지고 개인들을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시험, 유혹하였는데 인간은 그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손쉬운 시험과 유혹의 대상일 것이다.

---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엡2:2)

30) 요16:33.

31) ‘already’와 ‘not yet’의 긴장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종말론적 세계관이다.

32) 예수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보존하려 하였으나 가룟 유다는 잃었다. 이에 대해서는 요17장, 특히 17:12을 참조하라.

33) 요일 2:15-16.

34) 딤후4:9-10.

더구나 인간은-본 논문이 주지해왔듯이-유아기적부터 불안과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을 피하기 위해 대상과의 애착관계를 유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온 심리적 메카니즘을 소지하고 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삶 속에서 고통을 당하거나 당할 여건에 처해지면 쉽게 “세상으로 쫓아 온 것”을 언고자 한다. 그리고 그것에서 안전감, 보호, 만족, 평안을 느낀다. 비록 그것이 오늘 먹어도 내일 배고플, 오늘 마셔도 내일 목마를 것이라도 말이다.

이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 보자. 무엇보다도 먼저 퇴행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만나게 될 위험, 불안, 두려움에서 심리적 퇴행 행위만 하지 않는다면 사회에 종속되는 정도는 감소될 것이다. 프로이드 역시 전 지구적 신경증 현상인 퇴행을 멈출 것을 요청하면서, 불안이나 고통이 오면 담담히 대면하여 자연과 세상의 순리를 따르라고 요청했다.<sup>35)</sup> 물론 그는 본 논문의 의도와는 다른 목적으로 이를 언급하였다. 프로이드는 신에게 의지하는 것, 곧 종교를 갖는 것을 멈추게 할 의도로 퇴행 중지를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퇴행을 멈추면 종교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있듯이, 퇴행을 멈추면 사회에 종속되는 것도 멈출 수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사회도 신이라는 뒤르캬의 개념을 적용한다면 이 퇴행 중지는 바로 사회에게 종속되는 것을 막는 데도 적용될 수 있는 퇴행중지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앙인들이 개인과 사회 간에 발생하는 유아기적 퇴행과 그것의 문제점을 인식한다면 퇴행행위를 멈추고자 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사회를 사회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성서적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퇴행을 통해 사회-혹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에 종속되는 것 보다는 말씀에 귀속되어 말씀대로 살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세상으로부터 오는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것을 소유하며 누리하고자 할 것이다.

## 2) 기독교적인 대안들

신앙인이 사회, 세상의 힘을 넘어서는 삶을 살 수 있는 기독교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퇴행 행위 중지와 같은 사회학적 대안 외에 기독교적인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기독교적인 방법은 분명 신앙적인 믿음과 실천의 방법일 것이다. 필요하고 가능한 대안을 찾아보자. 먼저 가장 분명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자기 부인의 길일 것이다. 자기에, 자기 욕심을 넘어서면 된다. 사람이 자기를 넘어서게 되면 세상을 넘어서 살 수 있는 길을 갖게 된다. 사람이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은 세상에서 자신의 욕심과 자기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들을 부인하면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또한 자기 사랑과 욕심을 버린 자를 세상, 사단이 유혹, 시험할 수도 없을 것이다. 예수가 유혹과 시험, 세상을 이긴 것은 바로 이런 연유에서이다. 그래서 예수는 말하길,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였다. 여기서 부인이란 자기 사랑, 자기 욕심의 부인일 것이고, 자기 십자가란-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세상을 부인한데서 오는 십자가 일 것이다. 물론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수는 적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좁은 길, 좁은 문을 언급하였다.

둘째로, 세상으로 인해 초래되는 고통, 불안, 두려움을 담담히 겪으며 이겨내는 것이다. 세상은 죄와 불의로 차있다. 이런 세상이 고난과 시험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 담담히 그것들을 받아들이며 신앙으로 이겨나가면 된다. 예수도 세상에서 고난과 시

35) Freud, *The Future of an Illusion*, p.43.

힘을 당했고 제자들과 바울도 그러하였다. 그렇다면 신앙인들도 그러한 일을 겪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더 나아가,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므로 오히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 할 수도 있다.<sup>36)</sup> 이 고난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바울이 빌립보서 4:12절에서 언급한 어떤 상황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면 더욱 좋을 것이다.

셋째로, 하나님의 시각 혹은 종말론적 사고가 대안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시각이란 세상의 시각, 자신의 시각을 벗어나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이다. 종말론적 사고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이루어는 종말의 시점에서 현재를 바라본다는 것이다. 곧 이미 획득된 승리라는 관점에서 오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감당하지 못할 불안, 고통, 두려움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다가올 승리를 알기에 소망, 기쁨, 평안이 자리 잡을 수 있다. 예수가 담대하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한 것은-이 말을 하였을 때는 아직 십자가 고난과 부활 이전 이었다-이러한 하늘의 시각과 종말론적 관점을 소유하였기에 가능하였다고 할 수 있다. 신앙인 역시 동일한 관점을 소유하였을 때 동일한 결과를 갖게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리처드 니버(H. Richard Niebuhr)가 언급하여 잘 알려진 문화변혁적 사고를 수행하는 것이다. 위의 세 가지 방법론이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두고 자신의 성찰과 노력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이 방법은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시도이다. 예수도 이 방법을 취했다고 니버는 보고 있고, 따라서 이 방법을 오늘날의 신앙인들에게 제시한 것이다.<sup>37)</sup> 주요 변혁 대상은 사회 제반의 구조악과 불의, 문화의 역기능적 활동, 맘몬이나 쾌락과 같이 사회에서 신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일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변혁 혹은 제거 되지 않는 한 세상의 영향력은 약화되거나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 IV. 나오는 말

세상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을 좇기 보다는 세상을 좇아 세상에 종속되곤 하는가? 이 물음들에 대한 설명을 찾기 위해서 신앙인들은 프로이트, 위니콧, 미드, 베버, 뒤르켐, 고프만, 베네딕트, 기든스, 호네프와 같은 사회과학자들의 이론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신앙인들에게 사회의 본질과 속성, 그것의 힘과 기능에 대해 여러 가지를 말해준다. 신앙인들은 또한 프레이저나 캠폴로 같은 기독교사회학자와 대화할 필요도 있다. 이들은 일반 사회과학자들이 관심두지 않거나 보지 못하는 것들을 말해줄 수 있다. 두 영역의 학문을 조화롭게 선택한다면 신앙인들은 세상에서 살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사회적, 신앙적 문제들의 발생 원인과 과정들에 대해 좀 더 깊고 분명한 이해를 체득할 수 있다. 본 글도 동일한 의문과 관심을 두고 추구한 결과의 산물이다. 이를 통해 사회와 신앙의 문제에 관한 더 많은 관심과 연구가 지속되기를 소망한다.

36) 롬8:17, 뱀전4:13

37) H. Richard Niebuhr, *Christ and Culture*, 김재준, 「그리스도와 문화」(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9), 196-205면.

## 참고문헌

- 한국산업사회학회 엮음. 「사회학」. 서울: 한울, 1998.
- Benedict, Ruth. 김윤식의 「국화와 칼」. 서울: 을유문화사, 2002.
- Fraser, David A and Campolo, Tony. 강대기 옮김. 「신앙의 눈으로 본 사회학」. 서울: IVF, 1992.
- Kenberg, Otto F. 이재훈, 양은주 옮김. 「대상관계 이론과 임상적 정신분석」. 서울: 한국 심리치료연구소, 2003.
- Niebuhr, H. Richard. 김재준 옮김. 「그리스도와 문화」.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9.
- Pongs, Armin. 윤도현 옮김. 「당신은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가? I」. 광주: 한울, 2003.
- Turner, Jonathan H. 김문조의 옮김. 「사회학이론의 형성」. 서울: 일신사, 1997.
- Durkheim, Emile. *The Elementary Forms of The Religious Life* New York: Free Press, 1965.
- Freud, Sigmund. *Civilization and Its Discontents*, trans. James Strachey New York: W.W. Norton & Company, Inc., 1961.
- \_\_\_\_\_. *The Future of an Illusion*, trans., James Strachey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Inc., 1961.
- Goffman, Erving. *Stigma: Notes on the Management of Spoiled Identit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63.
- Mead, George H. *Mind, Self, and Society: From the Standpoint of A Social Behaviorist*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2.
- Sayers, Janet. *Sexual Contradictions: Psychology, Psychoanalysis, and Feminism* London: Tavistock Publication, 1986.
- Winnicott, D. W. *Playing and Reality* London: Tavistock Publication Ltd., 1971.